

자동차

Car



미쓰비시 'i'

1천만원대 수입차시대 연다

미쓰비시 'i' 판매 초읽기... 연료소비효율도 높아 젊은층 인기 끌 듯

일본의 미쓰비시자동차가 국내 저가 수입차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천만원대 수입차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일 대우자동차판매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중가 브랜드인 미쓰비시자동차의 특점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현지 판매 가격이 1천만원 안팎인 경차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자동차는 미쓰비시자동차의 국내 판매 가격이 1천200만~1천500만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수입차 가운데 가장 가격이 낮은 혼다의 '시빅1.8'(2천590만원)보다 1천만원 이상 싼 것이다.

미쓰비시의 경차 가운데 'i'와 'k' 등 4개 모델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일본 현지 판매가격은 800

만~1천200만원 수준으로, 젊은층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의 경차 기준은 배기량 660cc 미만으로 한국보다 낮다. 하지만 엔진 효율이 높은 데다 출력을 높여 주는 터보차저가 달린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이 1000cc급에 맞먹는 64마력에 달해 시내 주행용으로 손색이 없다는 게 대우자동차측의 설명이다.

연료소비효율도 높아 l 당 16~18km를 주행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차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감쪽한 디자인의 모델이 많다는 점에서 1천만원대 경차의 수입될 경우 20~30대가 구입하는 '첫 차'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가격 낮추고 안정성 높인 수입차 쏟아진다

고급 수입차와 충돌사고 대비
대물배상 1억 보험 가입 급증

최근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수입차와의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장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다.

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6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에 대물배상 보장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44.7%에 달했다. 이는 2005회계연도(26.5%)보다 18.2% 증가한 것으로, 2004회계연도(18.4%)에 비해선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개인용 차량의 경우 48.6%가 보장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장한도 3천만원의 가입비율은 2004회계연도에 55.9%에서 32.6%로 크게 낮아졌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수년간 수입차 판매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고액의 수리비가 드는 수입차와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벤츠 'C200'



렉서스 'IS250'



볼보 'S60'

벤츠·BMW·렉서스·폴크스바겐 등 12개 차종 잇따라 출시

수입차업계가 추석을 전후로 2008년형 모델을 속속 선보이며 국내 자동차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수입차업계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70여종의 차량을 국내시장에 쏟아낸 데 이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총 10여종의 신차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입차의 경우 친환경 및 안전성은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가격은 낮아지는 추세여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팔린 수입차는 모두 3만4천399대로, 전체 승용차 판매량(68만5천195대)의 5.02%에 달한다.

〈가격 거품〉피로 경쟁 가열=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0월 이후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폴크스바겐 등의 12개 차종이 잇따라 출시된다. 이 가운데 일부 차종은 저가의 보급형 모델인 것으로 알려져 수입차 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1월께 전면 변경 모델인 'C클래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C200K'를 비롯, 3~4개 모델로 구성된 'C클래스'는 젊음과 역동적 이미지를 살려 내·외관을 크게 개선했다. 무엇보다 새 'C클래스'는 출시가격에 관심이 쏠린다. 회사측은 'C200K'의 가격을 4천만원대 후반으로 잠정 결정했다.

BMW는 지난 5일 '뉴 528i'의 가격을 종전 동급 모델보다 1천900만원이나 낮추는 과격적인 가격인하 전략으로 수입차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528i'의 경우 지난달까지 총 957대나 팔렸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폴크스바겐 '골프 2.0TDI', 크라이슬러 '300C', 볼보 'S60' 등의 가격 인하 행진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폴크스바겐의 경우 10월중 '제타 2.0TDI' 2008년형 모델을 선보이면서 가격을 소폭 인하

할 예정이다.

GM은 10~11월 캐딜락 'STS' 2008년형과 사브 '9-3' 부분변경 모델 등 4개의 신모델을 내놓는다. 특히 '9-3'은 최고출력 210마력에 각종 안전장치 및 모니터 등이 설치돼 있지만 가격은 기존 모델보다 1천만원 가량 싼 3천600만~3천700만원대에 출시된다.

〈친환경·안전성은 대폭 업그레이드〉=수입차업계의 2008년형 모델들은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췄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폴크스바겐은 2008년형 '페이톤 V6 3.0 TDI'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이산화탄소와 분진의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인피니티도 2008년형 'G37 쿠페'에 유압식 제어 가변 밸브타이밍 등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인 차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편의사양과 안전장치도 크게 업그레이드했다. 아우디는 주력 모델인 'A6'에 버턴 하나만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를 탑재했다.

제규어 2008년형 'XJ'는 전면 시트 등받이의 리뉴얼을 통해 뒷 좌석 승객의 레그룸과 풋룸을 확대했다. 앞 좌석 시트에는 최첨단 '히팅&쿨링 시스템'이 적용돼 최적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볼보자동차는 사각지대 정보시스템인 'BLIS'와 미끄럼 방지 시스템(DSC) 등 각종 안전장치를 기본으로 장착한 스포츠 왜건 '뉴 V50'을 출시한다.

렉서스는 편의장치를 대폭 향상시킨 2008년형 'IS250'을 판매 중이다. 'IS250'에는 스마트 엔트리 스타트 시스템과 푸쉬 스타트 버튼, 운전석 및 조수석 무릎 에어백 등이 설치돼 운행시 최대한 편안함을 느끼도록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제규어 'XJ'



인피니티 'G37 쿠페'



BMW '뉴 528i'

10.28 공인중개사 합격

21일 파이널특강 3주 완성

10월 1일

광주고시학원

문의: 062-8003-1111, 0771-0002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0612-5530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매직&매직 아카데미

문의: (062)434-7857